

국·수 표준점수 최고점 전년비 하락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주요 학과 지원 가능점수 발표… “정시 지원할 경우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주요 학과 지원 가능 점수와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에게 배부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 대학 주요 학과 중 의예과 일반전형은 404~409점, 지역인재는 401~404점, 치의예과 일반전형은 400~403점, 지역인재는

397~400점을 예상했다.

또 한의예·약학과는 397~403점, 인문계열 국어·영어교육과는 340~347점, 자연계열인 간호학과·수학교육과는 352~356점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의예과의 경우 408~424점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시는 수시에 비해 모집인원은 적지만 수험생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 많은 만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의 지정 과목 폐지 여부 △과목별 반영 비율 △과목에 따른 가산점 부여 여부 △대학별 변한 표준점수

에 따른 유불리 △경쟁률 추이 등을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울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대면·화상 진학 상담도 이뤄진다.

본청에서는 16~23일 평일 오후 4~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21일 하

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www.jbe.go.kr/jnro>)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수시 복수 합격으로 인한 타 대학 등록 및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해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수험생도 정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 사업단
청년무역대상 창업부문 수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단장 김민호)이 '2024년 GTEP 청년무역대상' 창업부문에서 2년 연속 청년무역개척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청년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테디셀러' 팀(장재식, 김나영, 박수연, 박준모, 윤소담, 이예진)은 창의적인 아이템인 '배달메일' 한국어 학습 뉴스로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홈페이지 구축, SEO 작업, SNS 마케팅 등으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며 전자상거래 기반 무역 창업에 도전했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10일 전주효문중학교에서 인권 존중 캠페인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함께 만들어요’

전주 효문중서 ‘인권존중 캠페인’… 교직원·학부모·학생 등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전주효문중학교에서 인권 존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 전주효문중 교직원·학생회·학부모가 참여했다.

이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학교 공명체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핫팩을 나눠줬다.

한편 인권 존중 캠페인은 전주효문중을 포함한 도내 48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권 존중 캠페인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교과서로 학생맞춤형 수업 이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AIDT 전시회' 개최… 수업 시연 등 구성

디지털교과서로 학생맞춤형 수업을 이끌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북IT산업협회와 협약

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10일 학장실에서 전북IT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SW 역량강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프로그램 운영·평가·기술자문 지원 △지역사회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 △양 기관 상호 홍보 및 대내외 협업체계를 통한 위상 강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IT산업협회 라정진 회장은 “우수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 기술자문 교

류 등을 통해 전주대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글로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조동영 학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센터가 지난 9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 교육 혁신 중심…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개소

전주교대서…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센터가 지난 9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센터는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해 최신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는 혁신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첨단 교육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병춘 총장은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센터가 전북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센터는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로, 전북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발굴에 상호협력

전주교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9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에듀테크 활성화 및 교육·연구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양 기관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추진 △대학의 문해력 및 기초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우수사례 보급 및 확산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병춘 총장은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보육교육 질적 제고 ‘앞장’

전북대 아동학과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육교직원 650여명 대상 교육

일반 직무과정·보육교사 1급 승급과정 등 총 7회

전북대학교 아동학과가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일반직무교육(40시간),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교육(80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아동학과는 이번에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4회, 원장 일반직무교육 1회, 원장사전직무교육 1회, 보육교사 1급 승급과정 2회 등 총 7회의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사진=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제공>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임신, 출산, 장수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코로나 19 이후 오랜만에 대면교육을 받게 돼 뜻깊었다”며 “강의 내용이 보육현장에서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연 사업단장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아동학과는 2019년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첫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